

남북 정상간 핫라인 개통

靑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

청와대-北 국무위원회간 4분 19초 시험통화
“분단 70년 만에 처음 있는 역사적 사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연결해 줄 남북 정상간 핫라인(Hot line·직통전화)이 지난 20일 마침내 개통됐다.

남북 정상회담 종합상황실장인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역사적 남북 정상간 직통전화는 조금 전 완료됐다”며 “오후 3시41분부터 4분19초 동안 청와대와 국무위원회 간 시험통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이 먼저 평양으로 전화를 걸었고 국무위원회 담당자가 받았다”며 “전화연결은 매끄럽게 진행됐고 전화 상태는 매우 좋았다. 마치 옆집에서 전화하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소개했다.

청와대와 북한 국무위원회를 연결하는 핫라인 설치의 지난달 초 남북 특사단의 방북 때 남북이 합의한 사항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정상 회담일인 27일 이전에 첫 통화를 갖기로 한 상태다.

문 대통령이 이용할 비화기(電話機)는 청와대 비서관인 여민곤 3층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 놓였다. 비화기는 도청 등을 피하기 위해 일반 음성 신

호를 음어(陰語)로 변환해주는 특수 전화기다.

또 비화기가 설치된 집무실뿐만 아니라 관자를 비롯해 대통령이 업무를 보는 청와대 공간이라면 어디서든 통화가 가능토록 연결된 상태로 볼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 측 비화기가 어디 설치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전화기가 놓여있다는 사실은 북측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상호점검을 위해 남측이 전화를 걸어 통화한 시간은 3분2초, 북측이 전화를 걸어 통화한 시간은 1분17초다. 시험통화자로 나선 북측 담당자는 북한 국무위 소속이지만 직위와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시범통화에서 북측은 “평안입니다”라고 인사했고 이에 송 비서관은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청와대입니다. 잘 들리니까, 정상간 직통전화 연결을 위해 전화했습니다. 저는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입니다”라고 소개했다.

이에 북측이 “송인배 선생이십니까.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하자 송 비서관은 “그렇습니다. 잘 들리십니까?”라고

확인했다. 북측이 “잘 들립니다.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하자 송 비서관은 “서울은 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북측은 어떻습니까?”라고 물었다.

북측은 “여기도 좋습니다”라고 답했고 송 비서관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북측은 “그러면 이것으로 시범통화를 마치겠습니다”라며 전화를 끊었다.

이날 시범통화를 통해 기술적 점검이 완료됨에 따라 이번주께 남북 정상간 직접 통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남북 정상간 핫라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처음 구축된 바 있다. 2000년 6월 제1차 남북 정상회담 때 당시 김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 말미에 핫라인 설치를 제안했고 북한이 이에 동의하면서 설치됐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 직통 전화가 있어 두 정상이 직접 목소리를 주고받은 형태로 운영됐던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그나마도 이명박정부 들어와서 천안함 사태 등을 거치면서 남북관계는 급격히 경색됐고 이런 과정 속에 정상간 핫라인은 완전히 단절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직통전화는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다. 정상들이 언제든 전화하면 연결 되는 상황은 분단 70년 만에 처음 있는 것”이라며 “2000년 직통전화와는 다르게 청와대와 국무위 핫라인을 연결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도·시군 공무원직 노사 '한마음'

20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제2회 전북도·시군 공무원직 노사 한마음대회에 송하진도지사와 공무원직 조합원 및 가족등 참석자들이 화합의 의미를 담아 희망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도, 산자부 거점기관 지원 2개사업 선정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융합연구센터 구축 190억원
스마트 건설용 융복합 부품기술 기반 구축 199억원 투입

전북도는 2019년도 거점기관 지원 공모사업에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 융합연구센터 구축 사업과 스마트 건설용 융복합 부품·평가기술 기반 구축 사업을 공모해 2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거점기관 지원 사업은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지역에 연구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지역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선정으로 내년부터 5년간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융합연구센터 구축에 190억원, 스마트 건설용

융복합 부품·평가기술 기반 구축에 199억원 등 총 389억원을 투입한다.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융합연구센터 구축사업’은 탄소나노소재 기반기술과 중재적 의료원천기술 융합 연구센터를 구축하여 기업과 기술을 집적화하고 기업에 대한 원천기술 이전과 사업화 지원을 통해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융합기술 글로벌 메카화를 추진한다.

또한 ‘스마트 건설용 융·복합 부품·평가기술 기반 구축사업’은 스마트 건설기계 시험시설 및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 구축 인프라와 연계하여 전국적 경쟁력을 갖춘 건설기계 종합지원 인프라를 조성하게 되며,

군산의 위기 업종 전환 지원,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국제 공인 수준의 시험평가 시스템 보급 등을 통해 군산 지역의 어려움 극복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9년 거점기관 지원 공모사업에는 전국 시도에서 총 28개 사업을 응모하여 산업부 사전검토, 민간평가위원회 평가, 지역거점 심의위원회 심사 등 엄격한 평가절차를 거쳐 최종 19개 사업을 선정했다.

도는 사업 주관기관인 전북대학교 및 건설기계부품연구원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공모사업 발굴·기획 단계부터 중앙부처 수용성, 사업효과성 등에 중점을 둔 맞춤형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발표평가 및 심사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2개사업 모두가 공모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김진성 기자

6·13 지방선거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 동향

유광찬 “도시지역 학급당 학생수 감축 시급”

유광찬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는 “교육부에서는 2017 OECD 교육지표(2015년 기준)를 발표하고,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학교 23.4명, 중학교 30.0명으로, OECD 평균인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3.3명보다는 조금 많으나, 별 문제 없다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에 유 예비후보는 “학급당 학생수가 31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전국적으로 5만 여개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아직도 도시 지역학교는 OECD 평균을 훨씬 웃도는 과밀학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유 예비후보는 “교육부와 도교육청에서는 취학생수 감소만을 탓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도시지역 학급당 학생 수를 1년에 1~2명씩만 감축시켜 나간다면 별다른 혼란 없이 과밀학급 해소는 물론, 교사 임용절벽까지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기자



천호성 “전북교육희망재단 설립할 것”

천호성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전북교육의 재도약을 위해 ‘전북교육희망재단’을 설립하겠다고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에 천 예비후보는 “전북의 경우 수백 개의 많은 학교가 사라졌고, 학교의 소멸과 함께 마을도 사라지고 있으며, 어떤 지역은 이제 곧 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북교육희망재단의 설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전북교육을 위한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천 예비후보는 “우리가 사는 마을을 아이들을 위한 삶의 공간으로 바꾸어 가는 일이 중요하며, 아이들도 태어난 곳에서 자신의 꿈을 일구며 당당한 어른으로 살아가는 일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 지역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진정한 지역인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 예비후보는 “전북교육희망재단 설립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상민 기자



‘성폭력·평생의 아픔에서 치유로’ 내일 정신건강 세미나

전북도마음사랑병원은 오는 24일 오후 ‘성폭력·평생의 아픔에서 치유로’라는 주제로 제2회 마음사랑 정신건강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이슈였던 미투 캠페인 확산과 관련해 성폭력을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가해자·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여 적합한 방법으로 돕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최근 사회 각계에서 나타난 성폭력의 실태와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이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움직임이 컸다.

현 상황을 단일 사건으로 여기기 보다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세미나는 나의현(전북도마음 사랑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채현숙 (젠더폭력·성폭력 상담소



‘유쾌한 젠더로’ 소장), 서정석(전국대학교 총주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구성되어 실제적인 습득과 개인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